



정영한

(Chung, Young-han)

설계 정영한
정영한 아키텍츠
건축주
윤선자

정영한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02
년 스튜디오 아기홀릭(현.
정영한 아키텍츠)을 만 32
세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
수의 상형적인 건축 프로젝
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정기 기획전시
인 “최소의 집”의 출발전시
기획을 맡아 이시대의 짙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집
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최소
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
의를 통해 대중과의 사이를
채워나갈 공유점을 적극적으
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작품인 인사동의 ‘체화’
의 풍경 | POROSCAPE, 20
11)은 일본의 JAHU 및 이
탈리아 건축 매거진 AREA
129에 게재되었고,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9x9 실험주택은 역
시 영국 “FRAME” 등 해외
여러 사이트에 소개되었다.
2014년에는 “6x6주택”으로
김수근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김수근 프리뷰 어워드’
를 수상하였고 최근 2015년
에는 “다섯그루나무”로
2015년 한국건축기협회 올
해의 베스트7 중 하나로 선
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광운
대학교 건축과에 출강하고
있다.

사무소명 : 정영한 아키텍츠
T. 02.782.9621
H. www.archiholic.com
E. archiholicstudio@gmail.com

9X9 실험주택 9X9 EXPERIMENTAL HOUSE

Concept & Design

완벽한 기하학 평면으로 출발한 이 주택은 나의 첫 주택작업이다. 오래 전 루이스 칸은 팔라디오의 9분할 기하학체계를 트렌트 탈의장 (Trenton bath house, 1955)을 통해 단위공간의 기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기하학이 언제나 또 다른 가능성을 낼 수 있는 유효함을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동시에 거주의 본질에 다가갈 7가지 통로인 자연, 장소, 경계, 거리, 행위, 가구, 최소의 건축의 발견을 통해 주거 안에서 삶과 어떻게 일착되어 주택으로서 작동 할지에 대한 첫 실험 작업의 의미 역시 담고 있다. 이 주택의 건축 프로그램은 70대 화기인 여성 노인을 위한 최소의 거주와 작업 공간 그리고 갤러리이다. 주택의 위계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처 만들려 (MANDALA)의 형상과 흡사한 9x9는 절대적 기하학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공간구조의 가능성을 위한 설정이다.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성리

지역지구 : 제1종일반지구, 별말지구

프로그램 : 단독주택

대지면적 : 195.00m² (59.00평)건축면적 : 78.32m² (23.69평)연면적 : 93.24m² (28.20평)

건물층수 : 2F

건물높이 : 6.3m

주차대수 : 1대

건폐율 : 40.16%

용적률 : 47.82%



내부구조 : 철근콘크리트조(RC)

외부마감 : Stuc-O-Flex

내부마감 : Painting on plaster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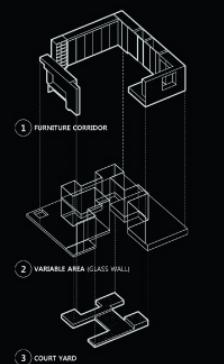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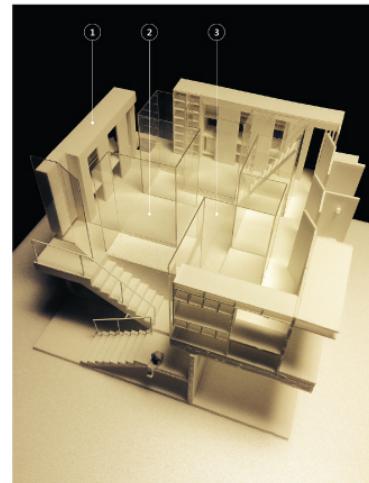
구조기술자 : Tsec Eng.

시공자 : 류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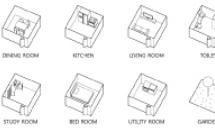
설계기간 : 2011. 12 ~ 2012. 05

시공기간 : 2012. 07 ~ 201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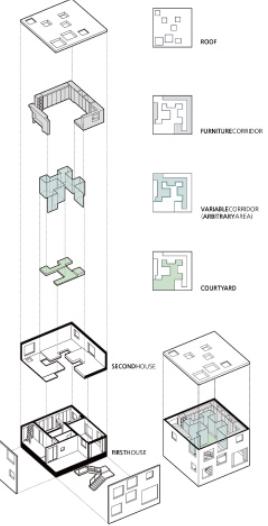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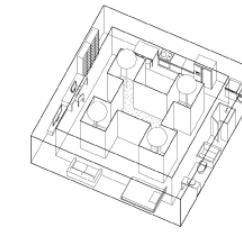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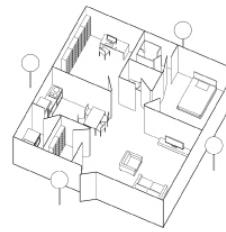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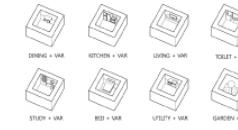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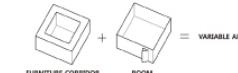
완공일자 : 2013. 05



Traditional House



9X9 Experimental House



Furniture Corridor

이 프로젝트는 기존 주거 공간에서의 영역, 가구, 경계의 세로운 해석을 통해 또 다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기능성의 첫 실험 주택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거주에서의 영역은 가구에 의해 정의(define)되어 있다. 즉 가구의 기능이 영역을 정의하여 소파와 TV가 놓인 곳은 거실로 식탁이나 주방기구가 놓인 곳은 주방, 양방기와 세면대가 놓인 곳은 화장실, 침대가 놓은 곳은 침실로 각각 정의되어있다. 이 정의된 영역으로부터 탈피하여 페니처 코리도 (Furniture corridor)란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영역을 능동적으로 정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폭 600MM~800MM의 페니처 코리도는 “최소기능의 수납”이라는 장치로서 주거에서 가구, 위생, 전기와 실비, 흰기 및 낭, 난방 시스템을 수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6x6 주택 프로젝트에서의 페니처 코리도는 계단, 애완견, 조경까지 수납의 기능이 진화되어 수직적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 장치에 각각 접해 있는 영역은 페니처 코리도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나 무빙 월의 개폐여부에 따른 가구 사용 시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의 영역이 된다.

페니처 코리드 개폐과정





내부 전경

다공성에 의한 투명성

두 번째 거주서의 경계는 가구로 정의된 영역을 물리적인 벽에 의해 나누어 전통적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동시에 집과 외부정원 역시 외, 내부의 경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이 실험주택에 적용된 가로 9M와 세로 9M는 기하학의 엄격한 경계의 설정(건축의 원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8M X 1.8M, 1.2M X 1.2M의 2가지 크기로만 구성된 다공(POROUS)에 의해 실상 내, 외부의 경계가 해체되어가길 의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POROSCAPE”이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전면 파사드에 적용된 1.8M X 1.8M 크기의 다공을 통해 “다공성에 의한 투명성”을 시도한 바 있다. 주변 외부 경관은 다공을 통해 차경 된 풍경이 내부 중정의 정원과 만나 0x0의 기하학 영역 설정인 물리적인 외벽이 서서히 해체되어 마치 태초의 자연 속 기주 풍경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외, 내부 경계의 해체는 페니처 코리도와 내부 중정 사이에 유리벽체로 구성된 영역에서 발생된다. 이 유리벽체는 오월의 형태로 내부중정을 따라 기여 외부 현상과 맞닿아 있다. 내부 영역과 영역 사이의 외부정원은 천장 슬라브에 적용된 1.2M X 1.2M크기의 다공 틈으로 빛이 내리쬐고 그 틈으로 스미드는 빛은 내부로 유입되어 보이지 않은 경계벽의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비와 눈이 내리는 현상을 통해 내, 외부의 경계는 흐려진다.



일면의 다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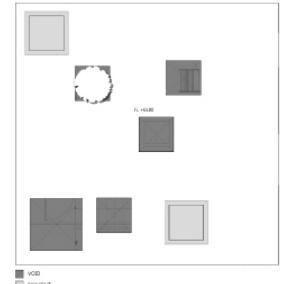


1st Floor Plan

- 1 현관
- 2 포치
- 3 갤러리
- 4 테라스
- 5 공방
- 6 욕실
- 7 다용도실
- 8 갤러리
- 9 창고

2nd Floor Plan

- 1 페니처 코리도
- 2 다용도 공간
- 3 중정



Roof Floor Plan



Section Plan



1 현관
2 포치
3 다용도실
4 페니처 코리도
5 창고





정영한
(Chung, Young-han)

설계 정영한
정영한 아키텍츠
건축주 유자연

정영한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스튜디오 아기홀릭(현. 정영한 아키텍츠)을 만 32세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상형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정기 기획전시인 “최소의 집”의 출발전시 기획을 맡아 이시대의 짧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최소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대중과의 사이를 차워나갈 공유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작품인 인사동의 ‘체화’의 풍경(POROSCAPE, 2011)은 일본의 JAHU 및 이탈리아 건축 매거진 AREA 129에 게재되었고,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9x9 실형주택은 역시 영국 “FRAME” 등 해외 여러 사이트에 소개되었다.
2014년에는 ‘6x6주택’으로 김수근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김수근 프리뷰 어워드’를 수상하였고 최근 2015년에는 ‘다섯그루나무’로 2015년 한국건축기협회 올해의 베스트7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광운대학교 건축과에 출강하고 있다.

사무소명 : 정영한 아키텍츠
T. 02.782.9621
H. www.archiholic.com
E. archiholicstudio@gmail.com

다섯 그루 나무 The Five Trees

Concept & Design

오래 전 산의 지형을 따라 빼곡히 자리 잡았을 수목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그 장소에 높이와 크기가 다른 인공 나무들이 하나 둘 채워졌다. 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그 거리 사이엔 남쪽에서 불어오는 비단바람이 잠시 머무르거나 한 낮의 북서쪽 높은 고도위에서 내리쬐는 따뜻한볕이 아래 고여 버리고 만다. 높이와 크기가 다른 나무들이 드리운 음영의 공간은 우리의 의식을 고요히 미주하게 하거나 때론 하루 종일 굴렁쇠를 굴리며 그림자를 쫓게 만든다. 미지 미로 속을 헤매듯 수없이 연결된 골목을 끌어 우연히 마주친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자아내는 풍경은 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설 대지엔 오래된 두 그루의 나무와 한 채의 적산 기숙 그리고 쓰러져가는 두 채의 슬레이트 집이 있었다. 이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을 활기하고 또 다른 시간을 이 장소에 이식(移植)하고 싶었다.



초창의 기파른 계단



다섯 그루 나무의 야경

대지위치 : 부산특별시 동구 초량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병지지구
프로그램 : 단독주택

대지면적 : 136.68m² (41.35평)
건축면적 : 76.59m² (23.17평)
연면적 : 135.96m² (41.13평)
건물층수 : 3F
건물높이 : 8.17m
주차대수 : 1대
건폐율 : 56.04%
용적률 : 98.04%



BIRD EYES VIEW

경험의 재현

‘초량’이란 장소는 우리 주거의 시간의 단면을 가로지르듯 다양한 유형의 주거, 이를테면 적산기숙, 슬레이트 집, 다가구, 아파트 등 각자 서로 다른 스케일과 보기 드문 밀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산지의 비탈면을 채워왔다. 자연 현상에서 주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색을 통해 주변과 동화되는 camouflage의 현상처럼 우리에게 기대 차분에 의한 대규모의 획일적인 개발방식이라는 천적으로부터 기존 장소의 고유한 특질들과 소소한 관계를 유지할 작은 스케일의 출발은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특히 초량과 같은 구도심에 있어 신축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 드러나지 않고 주변의 풍경에 어떻게 스며들지 그리고 개체간의 밀도, 다양한 폭의 골목길에서 느끼는 정감과 스케일, 그리고 비밀진 경사면을 오르기 위해 설치된 높은 계단과 같은 이 장소에서만 느낄 익숙한 경험들의 재현이 아닐까 싶다.



골목길과의 관계



골목길과의 관계



구드심 주변의 동화되는 다섯 그루 나무의 경관

경계 흐리기, 담장없는 다섯 채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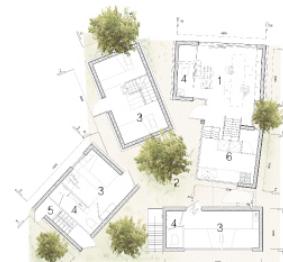
담장으로서 주변과의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마치 자연 숲속 수목들 사이의 능동적 질서에 의해 벌어진 다양한 틈을 통해 주변 골목길들을 안으로 끌어 들어 주변과의 경계를 흐려간다. 재료의 물성과 건물의 형태 또한 이 장소 주변이 오랜 시간 품어왔던 고유성과 친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주변 집들의 외장 재료는 조립이 작은 벽돌, 타일과 같이 시간의 물성을 담고 있는 재료 등이 도장면과 함께 건물의 일부 입면에 적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면(面)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거나 그 사이 드문드문 보이는 익명의 작업자손에 던져진 오래된 시멘트 품질 미감의 따뜻한 표정들을 달아 가고 싶었다.



또한 조형성만 가득한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섯 채의 집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크기 그리고 개체 간의 밀도만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다섯 그루의 나무는 다섯 채의 집을 은유한다. 그 중 한 그루는 여행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건축주가 살게 될 1인가구의 작은 집으로 나머지 네 그루는 여행자들을 위한 집으로 계획되었다. 대지 40평 위에 채 나눔을 통해 다섯 채의 작은 집들이 만들어 내는 거리는 마치 자연에서 늘 미주하는 수목과 수목 사이의 임의적 거리감과 닮아 있다. 그 사이로 초량의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스미고 짐시 머물고 갈 여행자들에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냇을 제공해 줄 것이다.



DRONE'S VIEW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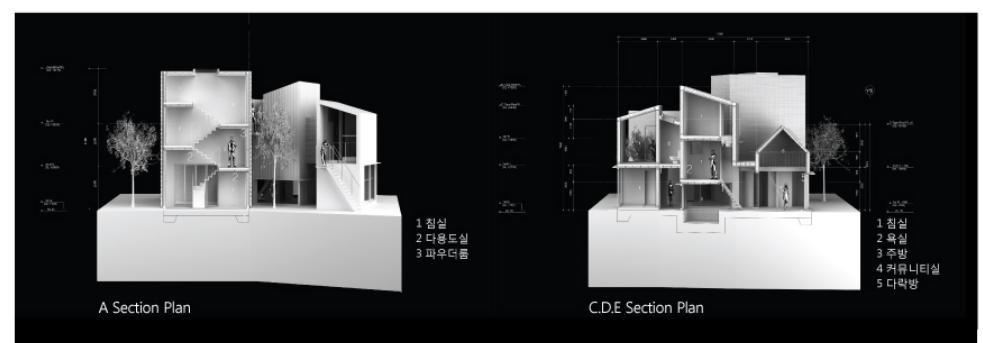


3rd Floor Plan

- 1 파우더룸
- 2 테라스
- 3 침실
- 4 욕실
- 5 테라스



A Section Plan



C.D.E Section Plan

- 1 침실
- 2 다용도실
- 3 주방
- 4 커뮤니티실
- 5 다락방